

지역 매 아리

완주군,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박차

완주군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발로 올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군의 3대 비전 중 하나인 '농도피아 완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8일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과정은 총 7개로 블루베리, 양파, 복숭아, 콩, 농작업, 농업미생물, 수경재배다. 이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분야별 교육내용으로 블루베리 재배기술, 고품질 양파 재배, 복숭아 재배기술, 콩 다수확 재배,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기계 안전 사용, 농업미생물의 활용방안, 수경재배 기술 등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더불어 영농 현장에서 적용과 수행이 어려운 애로 기술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업 기술을 전달하고 달라진 농정 시책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PLS 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금구면, 5월15일까지

산불 근절 위한 예방활동 강화

김제시 금구면(면장 서재영)에서는 매년 산불의 주요원인 중 약30%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농철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를 통해 민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빈틈없는 산불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안하기' 서약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책임감으로 자발적인 산불예방 동참하고 또한 마을 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으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전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로운 벌레가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함을 인식시켜 무단 소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재난안전분야 평가서

김제시, 기관표창 수상

전국 기초 자치단체중 유일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 재난안전분야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서 지난 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문화재청 표창은 방재, 정책, 제도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문화유산 보호하는 마음을 확산하고자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심사 및 표창하는 제도로 올해는 20명의 기관 및 개인 표창중 기초자치단체는 김제시가 유일하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보 제62호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한 8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김제시의 경우 금번 평가에서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4억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평상시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발생시 즉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또한 문화재 재난대응 소방훈련을 김제시, 김제소방서, 김제경찰서, 방화관리자, 안전경비원, 문화재 소유

자 등 민관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문화재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아울러 각종 안전점검시 드론을 활용 입체적인 문화재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했으며, 문화재 방재CCTV 화소수 개선 등 방재업무에 선제적 대응이 모범사례로 돋보였다.

양운업 문화홍보측재실장은 "이번 표창을 김제시 문화재 안전관리의 시금석으로 삼아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급목표(전북도 202호)까지 수시모집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목표(전북도 202호)까지 수시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책임대하

는 사업이다.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8,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부담액을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1월 29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되는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1일부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806)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양파·마늘 2개품목 ... 3월 31일 까지

김제시는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올해 본사업에 돌입함에 따라 2018년 양파, 생강 2개 품목에서 대상품목을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번 대상 품목인 양파와 마늘 2개 품목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북도 삼라농정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이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1만㎡이고, 신청대상은 관내 주수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확정하는 농업인

으로 사업신청은 계통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먹거리유통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시 해당 농가가 차액 일부를 보전 받음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완주군은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지난 7일 2019년 산림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완주군, 산림일자리 사업 시작

산불진화대·병해충예찰방제단 등 9개 분야 100여명 참여

완주군이 산림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지난 7일 관련 공무원과 산불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도시녹지관리단 등 9개 일자리분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림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림청 소관 주요 정책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림일자리 사업설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장 내 재해 사례 및 유형, 안전품 및 예초기 등 임업 기계장비 사용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완주군은 겨울 가뭄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우려가 높은 만큼 조기 발견 신고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

을 다하고 있다.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5월 15일 까지 불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14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에 민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주시 용복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발생지 반경 10km 외곽 발생 우려지역을 합동 예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2명을 투입해 구이면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시료 채취를 집중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국민건강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다"며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림사업에 임하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완주군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사업비 25억2600만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17년도에 고산면사무소에 1억9500만원을 들여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6개 항목과 더불어 풍향, 풍속 등을 24시

간 측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은 즉각적인 대응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기차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인다.

지난해 완주군은 전기 자동차 총 50대를 지원했으며, 노후경유차 폐차에는 총 106대를 지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